형수 그냥 두세요. 제가 옷만 갈아입고 금방 할게요.

도련님 거의 다 했습니다. 거의 다 했어요.

형수 아악!

형수 세상에! 저렇게 큰 건 처음 봐요.

도련님 내 잘못이에요. 아니다 내 잘못은 아니다 지가 마음대로 자연스럽게 된 거니까

 죄송해요 형.. 형수...!

지아 뭐? 형수?!

지아 형수의 일기가 그 형수야?

숙현 도련님의 막대는 그녀도 거부할 수 없었고

 방 안의 공기는 금지된 욕망에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숙현 강지아, 너 타이핑 안 하면 이번 주 용돈 없다!

숙현 어머~ 야무지게 썼네.

지아 주세용~

숙현 지갑 갖고와봐. 또 잃어버린 거 같은데.

지아 마지막으로 돈 쓴 건?

숙현 아~ 아까 시장 갔다 왔는데

지아 엄만 웬만하면 타이핑 좀 배우지?

숙현 작가스럽지 않아. 집필하면 뭐니뭐니해도 연필이야.

지아 안 팔리던 SF 소설들이 차라리 나아.

숙현 야설이 뭐 어때서? 이게 바로다 살아있는 성교육이라는 거야!

지아 엄마! 중학생 딸 앞에서 그게 할 소리야?

숙현 왜 그러냐~? 이런 대화는 건강한 건데.

지아 구피야, 이럴 땐 말 못하는 너이고 싶다.

숙현 지아야, 남녀의 교접은 아주 자연스러운 거고,

 또 네 나이에 남자들한테 관심 갖는 것도 아주 자연스러운 거야,

 엄마 말 알겠지?

 또 털렸어.

쪼매니 너 실력이 좀 죽었더라.

쪼매니 예전엔 쫌 하더니 말이야. 게을리 해서 그래.

 그럴 거면 발레는 왜 해?

지아 세상과 극소점으로 닿는 게 좋잖아. 그러는 넌?

쪼매니 우리 아빠가 발레 배우면 기사 딸린 차 한 대 뽑아준다고 그래서.

 너네 아빤 뭐하시냐?

쪼매니 야! 왜 말을 못하고 나가려는 거지?

 혹시...

지아 혹시 뭐?

쪼매니 무직 아니시니?

 무용샘이 그러시는데, 너 이번 달 레슨비 아직도 못 냈다면서?

 직업 필요하면 말해.

 아빠한테 말해서 차 뽑을 때 기사 자리 하나정도는 내 줄 수 있으니까.

 아님 레슨비 내가 내줘?

일파1 언니~ 여기에요.

일파2 그 연습생 오빠랑 어디까지 진도 나간 거예요?

세은 유치하게 그런 걸 묻냐? 어린이들이란...

세은 나는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너 이거 뭔 말인지 알고 읽냐?

세은 대답 안 해?

지아 말하면 알아들을 수 있어요?

세은 너도 그냥 읽는 척 하는 거지?

지아 생각만 좀 하고 살면 금방 알아듣는 문장인데...

세은 얘 친구 없지? 왕따야?

일파 예

지아 언니도 뭐 친구가 있는 건 아니잖요.

세은 ... 담뱃불로 보조개 좀 파줄 까?

학주 뭐, 문제라도 있니?

승언 도덕선생님이 임신하셔서 임시교사로 온 김승언이다.

 승언 수업시작할까?

학생들 선생님! 첫사랑 얘기해주세요!

승언 첫사랑이라? 음... 내 첫사랑은 스무 살 때

 대학에서 토론을 하다 만난 아이였다.

 그 아이는 그리스신화의 헤스티아처럼 선했지.

 하지만 알면 알수록 쇼펜아우어의 고슴도치 같은 아이였어.

 가시에 찔리는 줄도 모르고 나르시즘 적 페르소나로 그녀를 대하게 된 거지.

일파1 그냥 수업해요

일파2 졸라 짜증나

 승언 어디지?

승언 코키토 에르고 숨, 누가 한 말인지 아니?

지아 교과서에 나오잖아요.

승언 혹시 칸트도 읽었니? 하긴 그건 아직 이르겠다. 열심히 해라.

형규 학생이 읽으려고?

지아 엄마 줄 거예요.

형규 엄마도 내 팬이시구나? 자, 뭐라고 써드릴까?

지아 진정한 작가가 되세요!

형규 어?

지아 그렇게 써 주세요.

형규 그래

지아 짠!

숙현 어! 아니, 나 이 사람 아는데! 네가 이 책을 어떻게?

지아 엄마 힘내라고 사왔지. 흐흐음.

숙현 여보세요, 예.

 담 주에 계약금이 들어온 다구요?! 내년에 출간이요?

 그럼요 그럼요~ 예, 들어가세요!! 예!

숙현 지아야! 남사장이 엄마 책 내준 댄다!

 계약금이 얼만 줄 알어?

 자그마치 천만 원이야! 천만 원!

 지아 엄마, 이거...

숙현 야! 이까짓 발레 레슨비는 이제 한 큐야~ 아무 생각하지 말고 넌

 다리 들기나 열심히 해!

지아 엄마! 발레리나 엄마 입에서 다리 들기가 뭐야? 창피하게~

숙현 아무렴 어떠냐~ 우리 딸~~

지아 맞다 맞다 담임이 낼 오래.

숙현 왜? 우리 딸 사고 친 거야? 응?

지아 학부모 상담기간입니다.

숙현 너란 앤 무슨 반전이 없냐?

숙현 안녕하세요, 강작가에요.

숙현 어멋! 이사오셨나보다~

새댁 네, 처음 뵙겠습니다.

숙현 저는 413호에 사는 지아 엄맙니다.

 작가이기도 하고요.

 이거 제 명함인데요 요기 사이트 들어오시면 제 글을 보실 수 있을 거 에요.

 저는 바빠서 이만~ 지아 엄마에요! 작가!

음악샘 지아가 예고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예고 가려면

 성적, 실기, 학교 생활기록부 다 중요합니다.

 특히 정학, 퇴학 이런 건 절대 안 됩니다.

숙현 걱정 안해요. 지아가 저를 닮아서 범생이잖아요.

 초년엔 사고도 좀 치고 살아야하는데.. 그죠?

음악샘 혹시 아버님과는 이혼..?

숙현 아뇨. 원래 없었어요!

음악샘 아. 네.. 요즘은 반의 1/3이 편부모 가정인 걸요. 그런데 어머님 직업이?

숙현 요번에 큰 계약을 하나 해서요

 이제 집필 들어가면 집밖에 못 나오니까 담부턴 이메일로 상담해주세요~

 아, 그리고 지아 1학년 때 담임선생님은 제 아이디가 야생마라서

 스팸처리 하셨더라고요..

 꼭 기억해주세요! 지아 엄마에요

축구부 야마! 똑바로 안 해? 공차야 될 거 아냐 자식아!

숙현 얘들아, 간식 먹자!

의사 멀리 가버렸어~

지아 심각한가요?

의사 외상도 없고, 별 문제는 없는디, 정신이 나가버렸어~ 어디 좋은 델 갔나?

지아 집에 모셔가 도 될까요?

의사 보호자 오면 당장이라도 데려가도 돼~ 아빠 바쁘냐?

지아 제가 엄마 보호잔데요..

의사 미성년자가 무슨~ 아빠 모셔와! 보호자! 할머니,이모,고모,백숙고모 모셔와

새댁 413호 지아 학생?

지아 네...

새댁 412호 새로 이사 온 아줌마야.

 어머니한테 떡 좀 전해드려,

지아 네.

새댁 그럼 또 보자~

지아 여보세요.

남사장 어이~ 강작가?

지아 엄마, 지금...병원 ...

남사장 어어~ 달리고 계시느라 열라 바쁘시겠지?

 매주 수욜 마감인데 항상 요일을 까먹으시네.

 오늘 마감 이니까, 자정까진 우야둥둥 꼭~ 올리시라 꼭 전해라이!

지아 여보세요?

지아 137,320원 엄마는 뭘 이렇게 많이 썻대.

 그리고 입시반 고지서 일 십 백 천 만 십만 백만

남사장 오늘 마감 이니까, 자정까진 우야둥둥 꼭~ 올리시라 꼭 전해라이!

구피 어쩌려고! 엄마가 다 써놓지도 않았잖아!

형수 도련님, 떡 한 입 하세요.

도련님 그럼 제가 다 먹어도 될까요? 떡을 굉장히 좋아해서요.

지아 도련님이 다 먹으면.. 음.

구피 지아야... 하지 마. 그냥 냅둬.

지아 또, 떡 치면 되지 뭐~

구피 하지 마! 하지 말랬자나.

지아 형수와 도련님은 다정하게 쿵덕쿵덕 떡을 치기 시작했다.

 도련님은 열과 성을 다해 형수를 위해 떡을 치며

 “형수님, 정말 쫄깃쫄깃해요, 이렇게 맛있기는 처음이에요”

 두 시간 동안 떡을 치느라 도련님이 힘들어하자,

 형수는 도련님의 방망이를 양손으로 거들어주기 시작한다.

지아 떡치는 소리가 가득한 집안으로 형이 들어온다.

구피 이건 네가 할 일이 아니라고. 어린이. 안돼.

지아 이제 셋이 뭘 하지? ... 아! 셋이 떡 치면 되겠다!

 강지아 완전 천재아냐?

구피 오마이 갓.

지아 셋이서 떡을 치고...

 갈수록 쫄깃해지는 떡맛에 형수는 둘 다 너무 떡을

 잘 친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도련님도, 당신도 정말 떡을 잘 치네요!”

형수 잠깐 베리베리굿~

친구들 제수씨~ 저 왔습니다~

지아 형수는 잡고 있던 방망이에서 손을 떼고

형수 어서 오세요. 다 같이 떡 칠까요?

구피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아님 피는 못 속이는 건가?

지아 근데 진짜 떡은 어떻게 치나?

편의점녀 저는 아무것도 본적이 없습니다.

신랑 당신, 안 자?

지아 여보세요

남사장 아그야, 이렇게 파격적이고 급진적인 전개에 억수로 깊이 감동하고 있다고

 꼭 전해드려라잉. 입금 바로 했다 그러니까

 요 감동 마지막까지 쭈욱~ 이어가야한다고 꼭 전해드려라이~

지아 네, 그렇게 전할게요.

남사장 으, 그래 그래

승언 1번 강지아!

승언 데카르트, 너 발레 한다면서?

지아 어떻게 아세요?

승언 요번 교내 발표회 나갈 학생으로 담임선생님이 너 추천하시더라.

지아 발레 좋아하세요?

승언 발레란 고귀함의 최대치지. 극소점으로 세상을 딛는 순간은 기적 아니니?

 1번 어... 어! 강지아, 하는 거다!

지아 저 아직 결정 안했는데...

승언 네가 아니면 누가 이 학교에서 숭고함을 보여주겠니?

편의점녀 이번 야설로 전 저혈압이 나아졌어요. 맥박 상승. 혈압 증가!

고시남 혹시 야설을 읽으며 죄책감 느낀 적은 없어요?

음악샘 근데 야생마님은 언제 진짜 흥분되세요? 혹시 야설 쓸 때?

지아 꽃잎을 만질 때요?

형수 도련님, 학교에서도 파이팅! 애들한테는 도덕만 가르쳐야 되요. 알았죠?

승언 전 그저, 연약한 꽃잎을 어루만지는 사람일 뿐이에요. 다치지 않게.

새댁 자기야.

신랑 그냥 자자.

새댁 나 손 잡아주면 안 돼?

신랑 ... 오늘 일 많이 했어.

승언 우린 평소에 도덕적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

 하지만 도덕적이라는 기준은 참 모호하다.

 그래서, 난 도덕적이냐 비도덕적이냐라는 말보다 딜레마라는 말을 더 선호해.

승언 딜레마란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선택이 존재하는 상황을 말한다.

 여기 예쁜 꽃이 있다.

 난 이 꽃을 꺾을 수도, 그냥 지켜볼 수도 있겠지.

 어떤 선택을 할진 항상 자신의 몫이다.

지아 선생님이 어떤 딜레마에 빠진지 아세요?

승언 너라는 딜레마지!

지아 어떤 선택을 하실 건데요?

승언 널 꺾고 싶지만 그럴 수 없구나.

지아 전 선생님의 꽃이 될래요.

노교수 도련님의 손이 꽃잎을 부드럽게 만지기 시작했다.

음악샘 그러자 여학생의 꽃잎은 수줍게 물들어 서서히 피어나기 시작했다.

 어~

고시남 꽃잎이 서서히 도련님의 손길에 열리며,

편의점녀 뭘 서서히 열어. 확 열어야지. 빨리빨리.

새댁 여보세요.

신랑 전활 왜 이렇게 늦게 받아?

새댁 미안. 냄비가 한창 끓는 중이라...

남사장 점점 더 분홍빛 꽃잎을 어루만지는 그의 손길에..

 이런 비윤리적인 윤리 선생이 세상에 어디있다 마이고!!!

승언 1번! 강지아!

승언 숙제장 걷어서 교무실로 갖고 와라.

세은 뭐? 숙제? 나 못 들었는데? 야! 늬들은 들었어?

세은 야! 너 아까 뭐, 열심히 쓰던데, 그거 대신 내자.

 예 좀 막아

 지아 언니 주세요

 세은 어린이 너 글도 쓰냐? 야 얘봐라

 꽃잎을 어루만지는 윤리의..

승언 너희 둘은 화장실 청소, 그리고 너희는 도서실 책장 정리 담당이다.

 한 학기 점심시간마다 오는 거다.

세은 대박 짱나. 왜 저까지요?

승언 친구를 괴롭히는 것도 비윤리적이다.

음악샘 어린애가 벌써부터 야설이나 베끼고

 강지아는 엄마 바쁘다고 하셨지. 아빠, 아니다.

 아빠 없다고 했지? 엄마 다시 한번 나오시라 그래.

지아 네

승언 책을 많이 읽다보면 어른스런 생각도 할 수 있지. 호기심은 죄가 아니야.

 기운 내라. 데카르트!

음악샘 어머, 윤리 샘~ 요즘 애들한테 그러면 큰일 나요.

승언 아직 애들이잖아요.

음악샘 쌤, 순진하긴. 요즘은 애들이 더 무섭다니까.

 선생님 그런데 진짜 여자 친구들 많게 생겼다.

승언 저 없어요.

음악샘 어흐~ 거짓말.

지아 교무실에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있는

 노처녀 음악샘과 유부남 체육선생을 본 도련님은 많이 당황스러웠다.

지아 음악 뒤엔 체육이, 체육 뒤엔 수학이..

 수학 뒤엔 과학까지 교무실은 바로 통합교과의 현장!

지아 가짜 같아. 이런 게 아닐 텐데.

구피 당연하지. 넌 작가가 아니잖아. 그냥 하지 마.

지아 아무래도 진짜를 알아야 진짜를 쓰겠지?

구피 왜이래. 무섭게. 진짜.. 해보려고?

지아 유치하게 쑥이 뭐야?

숙현 형규의 친구 동훈과의 밤은, 올해 일어난 최고의 사건이다.

 난 결코 그 날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그 날, 우린 에피소드가 있었으므로...!!

지아 그럼 동훈이... 내 아빠?

지아 엉덩인 거짓말 안 한다고?

 작가란 분이 일기도 띄엄띄엄 쓰셨네.

세은 어린이! 아직도 정리 다 안했나?

지아 그런 것도 읽어... 요?

세은 응, 야해서. 이것도 정리해놔

지아 내게 몸을 기대듯이 하고서 말했다.

 “아냐. 우리 제발 약혼은 하지 않기로 해”

세은 작업의 정석은 고전이지.

지아 이 많은 책을 언제 다 읽었어요?

세은 옆면을 봐.

세은 제일 진한 선들을 따라서 딱! 펼치면 ... 다 야해!

지아 에?

세은 선배들이 가장 많이 읽은 부분이거든. 특급 비밀이다.

지아 근데 정말 해봤어요?

세은 뭘?

지아 그...거...

세은 띠로리?

세은 왜? 너도 해보고 싶어? 내가 말해줄까?

지아 하지 말라잖아요.

세은 원래 어른들이 하지 말라는 것들 중에 좋은 게 참 많은 거야, 어린이~

세은 정리 다 하고 와라. 신책 나오면 내가 일빠

형규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냐?

지아 여기 건물 이름이 풍년빌라잖아요.

형규 아 소설 제목이랑 같은 걸 알아냈구나

 숙현은 잘 지내지?

지아 네... 근데 저희 아빠 어디 있어요?

형규 맥주로 줄까?

지아 저 미성년자잖아요.

형규 요즘 애들은 다 하지 않나?

지아 전 안 하는데요.

형규 그래 너희 아빠는 여기 없단다.

지아 어디 계시는데요?

형규 십년 전,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형규 그래서 숙현이 아무 말 하지 않았을 거다.

지아 ... 아무렇지 않아요.

형규 뭐?

지아 어디 서울에서 찌질 하고 궁상맞게 만난 것보다

 차라리 죽은 아빠 쪽이 더 나은 거 같아요.

 처음부터 아빠 같은 거 없었으니까.

형규 혹시 아빠가 필요하면.. 말야.

지아 네?

형규 그냥.. 예전에 네 아빠한테 빚진 게 있어서 그러는데,

 내가 도울 일 있으면 뭐 언제든

숙현 다들 안 일어나!

숙현 너 콤온!

 코치 포함, 단체 기합이다.

숙현 하체 단련을 위해 다 같이 오토바이~~!

지아 이제 그 빚 갚은 걸로 하고 돌아가시면 돼요.

형규 또 보호자가 필요하면...

지아 제가 알아서 할게요.

형규 저기 엄마한테는 비밀로

지아 네

지아 엄마, 아빠 사고 난거 알고 있었어?

 그래서 계속 숨겼던 거야?

숙현 지아야, 어디 가려고?

지아 엄마는 구라쟁이~!

숙현 어?

지아 내가 1등하면 아빠 보여준다고 했잖아.

 그런데 어딨어?

숙현 지아야, 아빠는 나중에 보고,

 돈까스 먹으러 갈까?

 돈까스 먹고 싶다고 노래 불렀잖아.

지아 싫어! 아빠 없으면 안 먹어!

 엄마나 실컷 먹어!

승언 유급생은 결석하고, 우리 문제 작가만 혼자 있네?

승언 도서실 정리 열심히 해서 주는 거다.

 그리고 호기심은 죄가 아니야.

지아 띠로리가 뭐 별건가요?

승언 띠로리 머. 그래. 문학적 용어로 적당하구나.

 이건 그런 책 아냐. 그러니까, 음.. 띠로리도 일종의 대화라는 거지.

 그 안에 담긴 철학적 의미를 살펴보자는 거구.

지아 그럼 철학적으로 띠로리는 왜 하는 거래요?

승언 어... 그건 말이지. 나중에 또 다른 책을 빌려줄게.

 이거 먼저 읽고 다시 얘기하는 거다?

승언 아... 그리고 가끔은 어른인 척 안 해도 돼.

지아 네 남사장님

남사장 강매니저?

지아 네....저, 엄마

남사장 알어~ 알어~ 강매니저!

 오늘 마감도 믿는다고 꼭 전래드려라이~!

 지금 페이스~! 열나게 좋다고, 허벌나게 좋다고, 하이고 우짤고!

지아 네... 그럼, 이만.

노교수 세월은 많지 않으니 얼른 진도 뽑아주세요.

편의점녀 난 이 전개 반댈세. 꽃잎을 만지더니 키스라뇨? 왜 쉬어가나요? 뿅!

 1200원.

고시남 도련님과 여학생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음악선생 정말 이 둘의 전개가 기대됩니다.

지아 나오시라고요.

신랑 옷은 벗고자.

새댁 의사선생님이 오늘이 좋은 날이라고. ... 하면 안 될까?

새댁 바람 펴?

신랑 뭐?

새댁 나 사랑해?

신랑 오늘은 나가서 잘게!

승언 오늘이 1일이지? 1번!

 음... 67쪽 읽어볼까?

승언 윤세은은 오늘도 결석이야?

 도서실 담당! 오늘 저녁까지 마무리해야지.

 교내 축제 때 개방하기로 해서 내일부터 오픈이다.

지아 칸트 읽었어요.

승언 어렵지 않았니?

지아 전... 그 자유의지라는 말이 젤 좋았어요! 잠시만요, 여기요!

지아 어떡해? 죄송해요.

승언 아냐 아냐

지아 어떡해.

지아 여기, 인간은 감성적인 동시에 이성적일 수도 있는 건

 인간 자신이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여기요..

승언 어. 의지대로 행한다는 건 말이야.

 언제나 딜레마를 안겨주지. 특히 어린 나이에는 말이다.

지아 어린애들한테는 하지 말라고 하면서 어른들은 다 하고 살잖아요.

지아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지아 제 이름을 불러주세요!

승언 뭐?

지아 제 이름요!

승언 어.. 그러니까... 네가 3학년 1반, 1번....

지아 제 이름이 뭐예요?

승언 뭐?

지아 이름

승언 1번.

돌쇠 야생마 님의 야설은.. 전혀 성을 모르는 소녀가 쓴 것 같군요.

 야설이란 게 원래 숨겨진 욕망들을 분출하는 쓰레기 같은 거죠...

 정작 야생마님이 못 해서 이렇게 푸는 푸닥거리에

 왜들 열광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추잡합니다.

지아 야! 진짜 어이없네, 죽었어

깡쥐 그러는 돌쇠님은 왜 로그인 하신 거죠? 몰래 엿보고 싶은 욕망도 추잡해요!

지아 느낌표!

돌쇠 저희 집 컴퓨터에 이곳 사이트가 등록되어있더군요.

 제 아내가 왜 이런 쓰레기들을 읽는지 알고 싶어서 다 읽어봤지만

 쓰레기일 뿐이었으니까요.

지아 뭐? 또 쓰레기? 아 진짜 누구보고 쓰레기래

지아 부인을 사랑해주셨다면 그 야설로 달랠 필요도 없었겠죠!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럼 가서 섹스나 하세요!

 섹스도 못하는 남편이 남편인가요? 차라리 죽어버리라구요!

신랑 뭐? 죽어버리라고?

지아 왜 친절하신 거예요?

형규 감기 예방이지. 왜? 작업 거는 거 같아?

지아 작가님도 남자니까.

형규 남자들이 우습니? 늬 엄마도 그랬는데, 그러고보니 닮았구나.

 근데 너야말로 여기 왜 온 건데?

지아 저요? ... 모르겠어요.

형규 그냥 발걸음이 여기로 향했다? 너 작업 걸러 온 거야?

지아 물어볼 사람이 없었어요. 검색을 해도 모르겠고,

 책을 읽어도 모르겠고

형규 뭐가?

지아 띠로리가..

형규 띠로리? 이태리어야?

지아 그러니까 그 섹..

형규 아! 알아들었다.

지아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자랑 여자는 왜 도대체 왜 하는 건지, 사랑하니까 하는 건가?

 사랑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건가요?

 같이 안 잔다는 건, 안 사랑한??

 정말로! 하나도 모르겠어요! 말 좀 해봐요.

형규 ... 나도 모르겠구나.

지아 예? 어른이 그걸 왜 몰라요? 어?

형규 어른이라고 다 아는 건 아냐.

 진짜 어른이 어딨냐? 어른인 척 하는 거지.

지아 어른들은 이상해, 아니 사람들도 다 이상해요.

 내 기분도 이상하고 사람들도 이상하고 나도 이상하고! 모르겠어요

 그냥! 짜증나! 나 진짜 아이! 진짜 모르겠어요 나

형규 그래, 그냥 울어도 괜찮아.

형규 야! 진수성찬이다 진수성찬 야! 밥!!...

 너무 많이 차렸나

세은 새롭네, 학교 밖에서도 다 보고..

 무슨 일 있어?

지아 ...

세은 왜 말이 없냐?

지아 언닌 어디 아팠어요?

세은 실연 후 내상. 너도 남자문제?

지아 ... 술 먹고 해버렸어요.

세은 누구랑?

지아 언닌 모르는 사람.

세은 이젠 세상이 달라 보일 거다.

아줌마1 아까 앰뷸런스도 오고 난리도 아니었어~

아줌마2 왜 왔대?

아줌마1 412호 새댁신랑이 자살 시도한 거래.

아줌마2 목뼈 다치면 즉사하는 거 아녀?

아줌마1 옥상에서 떨어지면 거의 죽는 거지.

지아 차라리 죽어버리라고요

신랑 뭐? 죽어버리라고?

옆반 학생 강지아가 누구야?

학주 여기까지!

 이게 복구업체에서 복구가 안되

 이게 내가 생각하는 그게 맞는 거죠?

승언 아닙니다! 전 그냥 오뎅 국물이 떨어져서...

학주 오뎅국물이 거기에? 그게 말이 됩니까?

승언 아무리 기간제 교사지만. 전 도덕 선생입니다.

 여기 이 학생이, 엄마도 아프시고 아빠도 없는데..

 그럼 선생이라도 성장통을 받아 줘야한다 생각해서 아꼈을 뿐입니다.

학주 윤리샘이 성추행한 거 맞어?

지아 우리가 같이 잠 잔 것도 아니잖아요. 오해에요.

음악샘 허... 아주 되바라졌네.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니까요.

승언 전 학생으로 대한 것뿐입니다.

 야, 말 좀 해봐. 내가 널 추행한 게 아니라

 니가 오히려 나한테 띠로리가 어쩌고 하면서 물어봤잖아.

음악샘 강지아 너 애가 아주 못쓰겠구나.

학주 근데 이거 누가 봐도 이게

승언 ... 어. 너구나.

세은 아무리 기간제 교사라 생계가 중요하지만

 제자 팔아서 등 따숩고 밥 쳐드심 좋습니까?

승언 무슨 말이니?

세은 지아가 당신 후린 것도 아니잖아. 너 살자고 학생하나 못 지키냐?

승언 이 녀석이 선생님한테 정말

세은 뭐?

승언 야 너 정학당하고 싶어? 어?

지아 엄마...

숙현 체력이 그거 밖에 안 돼? 빨리 안 일어나?

코치 가자

숙현 지금 뭐하는 거야?

지아 엄마! 엄마! 엄마!

 숙현 괜찮아?

지아 엄마? 엄마!

숙현 얘가 왜 이래? 울지마

지아 엄마!

숙현 기대 이상이다, 강지아! 대형 사고도 치고...

 뭐, 소설은 다시 쓰면 그만이야.

 그러니까 엄마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넌 다리들기나 열심히 해

지아 엄마가 뭘 알아서 한다고 그래?

 내가 벌인 일, 내가 알아서 해.

숙현 이 놈의 기집애. 원래 엄마들은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거야. 네가...

지아 이제 와서 무슨.

새댁 그렇게 죽고 싶을 만큼 날 떠나고 싶었던 거야?

새댁 내가 당신을 그렇게 괴롭힌 줄 몰랐어.

 난 그냥 아이가 갖고 싶었을 뿐인데...

형규 학생이 학생증을 놓고 다님 어떡해?

숙현 형규 씨?

형규 돌아왔네?

숙현 두 사람, 아는 사이야?

형규 어. 내 팬이라고 찾아왔었어.

숙현 근데 형규 씬 여기 왜 왔어?

지아 아... 내가... 학생증을 흘렸거든.

숙현 이왕 이렇게 된 거 서로 인사해!

 지아야. 네 아빠야!

형규 ... 동훈이 딸 아냐?

숙현 동훈이랑 잔적 없어.

지아 나 일기장 봤는데?!

숙현 그걸 언제 봤대? 진짜로 잠만 잤고 진짜로 하진 않았다고!

형규 정말 내가 아빠 맞아?

숙현 내가 딸 앞에서 거짓말 할까봐?

형규,지아 그걸 왜 지금 얘기해!?

숙현 한 달마다 만나는 여자는 바뀌고! 결혼 생각도 없고!

 그런 남자한테 임신했다고 말해서 뭐하게?

형규 그래도 말은 했어야지! 이제 와서 딸이라고 하면 난 어쩌라고

지아 왜!

지아 왜 자기들이 싸워?

 나는 어쩌라고!!! 화난 것도 나고! 놀란 것도 난데, 왜 자기들이 싸우냐고?

지아 엄마도 무책임해! 왜 지금까지 얘기 안 해줬어?

숙현 ... 내년 니 생일엔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은 했었어

 ... 진짜야 진짠대

지아 구라쟁이... 무책임해... 둘 다 너무 무책임하다고!!!

세은 임신이라도 했어? 알지. 윤리랑 안 한 것도 다 알아.

지아 차라리 윤리가 날 뻔했어요.

세은 왜?

지아 그 사람이 내 아빠래요.

세은 차라리 임신이 낫겠다.

숙현 아직도 맥주냐?

형규 아휴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네.

숙현 기억나? 비오던 날.

형규 나야 기억하지만 너는 술 많이 먹어서 기억 못할걸?

숙현 아니, 난 생생하게 기억해.

형규 동훈이 그 녀석, 어쩜 그렇게 훌쩍 미국으로 가버린 거냐?

숙현 원래 동훈이, 아메리카에 꿈이 많았잖아.

형규 넌 괜찮냐?

숙현 뭘?

형규 너랑 동훈이... 그렇고 그런 사이였잖아.

숙현 야!

형규 아이씨.. 왜 그러냐?

숙현 너 바보냐?

형규 어? 너 미쳤냐?

숙현 아니지, 너 같은 카사노바가 바보는 아니고, 바보인 척 하는 거겠지.

형규 그건 오해야.

숙현 나 먼저 일어난다.

 이 한심한 놈아. 뭘 꼬라봐 이씨

형규 죄송합니다.

숙현 술값은 반띵하자, 우리 사이가 그렇지 뭐.

형규 숙현아, 왜 그러냐? 밖에 비 많이 와.

형규 숙현아! 야, 숙현아

 괜찮아? 뭔 술을 이렇게 마셨어?

숙현 어디서 카사노바 질이야!

형규 야! 내가 일부러 그런 거 아냐

숙현 우린 여전히 그때 그대로인거 같에

숙현 지아가 한 살 먹을 때마다 나도 그만큼 엄마가 되는 줄 알았는데...

형규 근데 왜 결혼 안했어?

숙현 남자까지 만나고 다니면 지아한테 엄마 노릇 안할 거 같아서.

형규 엄마 맞네.

숙현 문제엄마지.

형규 넌 그래도 차근차근 문제엄마라도 됐지

 대체 십육년치 아빠 노릇은 어떻게 하면 되냐?

숙현 고고씽해라 ~ 이 무책임하게 정자만 주고 간 인간아!

형규 나는 근데 왜 너랑 동훈이가 사귄 거로 알고 있지?

숙현 눈치 하나도 없네. 동훈이 게이였어.

형규 뭐, 게이?

숙현 그리고 걔가 널 좋아했거든?

형규 날?

숙현 놀래라씨

 진짜로 잠만 잔 날, 나한테 게이라고 고백하더라.

 그리고 널 잘 부탁한다고 하고 미국으로 떠났어.

새댁 어머님이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아들 죽인다고...

 아들 죽이기 전에 이혼하라 하셔

 당신도 나랑 있는 게 힘들지?

 내가 떠나줄게.

새댁 괜찮아? 어떻게...

남편 당신을 안고 싶은데 아이를 못 갖는다니까 (입 모양으로) 사..랑...해...

 저 이벤트를 하려다 발을 헛디뎠 던 거야 나도 이제 노력해볼게

지아 절 사랑하세요?

형규 아빠로서 그 정돈 아닌데.

지아 그럼, 남자로서는요?

형규 그걸 말이라고 하니?

지아 사랑하니까 잔거잖아요.

형규 뭐?

지아 왜 우리 그 날 밤, 띠로리. 아니, 에피소드가 있었잖아요

형규 우리 한 적 없다.

지아 분명... 옷도 벗었고! 이불에댜가...

형규 감기들까봐 이불 갖다 줬고

 나 나가고 네가 직접 벗었겠지... 분명 안했어.

지아 피는..요? 아프고 피나면 한 거라고.

형규 며칠 동안 안나왔었니?

지아 4... 5일?

형규 꼭 이러니까 딸한테 성교육 시키는 아빠 같긴 하다.

지아 지금 농담이 나와요?

형규 너 그거 생리한 거야!

 어째 여자애가 생리랑 그것도 구별 못하냐?

지아 해봤어야 알죠!!

형규 우리가 했으면 벌써 내가 자살했을 거야.

 나중에 네가 진짜 하면 알게 될 거야.

 그 날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거.

 엉덩인 거짓말 하지 않거든!

지아 대체 그게 무슨 뜻이에요?

형규 그건 엄마 몫으로 남겨둘게.

지아 .. 아빠랑 딸이랑 원래 이런 얘기 하고 살아요?

형규 아마 아닐 걸?

지아 진짜 고마워요. 우리가 안자서 다행이에요 진짜.

형규 어.. 그렇지. 근데 딸이 아빠한테.

지아 아직 아빠라고는 인정하진 안 했어요.

형규 그래, 기다릴게. 나도 아직은 준비가..

음악샘 저 작가님 팬이에요. 소설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긴 어떻게?

형규 강지아 아시죠?

형규 지금 정학당하면 우리 지아 입시는요?

형규 생활기록부에 정학 같은 거 남으면 예고 입학에 지장있다면서요.예?

음악샘 학생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불편해해서요.

음악샘 왜 이러세요. 작가님, 언능 일어나세요, 이러셔도.

형규 작가로서 말고, 아빠로서 부탁드립니다...

지아 저 자퇴할게요. 제가 잘못한 거니까, 제가 나가는 거라구요.

지아 안 일어나고 뭐해요?

숙형 어? 형규씨.

지아 엄마 여기 왜 왔어?

숙현 돈 봉투 가져왔지

형규 뇌물 같은 거 주면, 요즘 큰일 나.

숙현 그래? 그럼 내꺼.

지아 쪽팔려. 다들 나가 어? 나 그냥 자퇴한다니까!

숙현 근데 형규씨 울었지? 눈이 퉁퉁 부었어

형규 울긴 누가 울었다 그래

숙현 울었는데 뭐

지아 나가자 어? 사람들 쳐다보잖아

숙현 니 아빠 울었니?

형규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숙현 울었는데

형규 뭘 이렇게 많이 사왔어!

지아 구피야, 그동안 외로웠지? 짠! 니 친구 웬디야~ 인사해.

쪼매니 너 오늘 좀 하더라.

지아 뭘, 생각했던 것 보다 많이 못했는데...

쪼매니 못했는데 대상? 근데 너 또 혼자야?

지아 아니.

쪼매니 뭐 혼잔 맞는데 뭐, 너 아빠 없지? 그래 전부터 이상했어.

 아니면 아빠 뭐하는지. 말 못하는데?

지아 우리 아빤 작.가.야!

쪼매니 소설을 써라

형규 우리 지아, 아빠 왔다~!

지아 아이, 오지 말라니까.

형규 우리 딸, 이렇게 큰 상 받는데 안 올 수가 있나?

쪼매니 야, 저 사람이 너 아빠야? 나 저번에 잡지에서 봤는데?

지아 그래? 몰라. 아빠랑 별로 안 친해서.

쪼배니부 우리 딸, 아빠는 말이야...

형규 많이 닮았네.

숙현 강지아, 우리 딸 너무 잘 하더라~

지아 울 거면 오지 마. 엄마 창피하게.

형규 야, 쪽팔려. 지아야, 엄마 말고 아빠랑 놀자.

지아 아빠도 오지 마. 사람들이 다 아빠만 보잖아!

숙현 그러게. 저기요 저도 좀 봐주세요 나도 작간데

동현 조금만 스탑! 조금만 오른쪽으로! 스탑!